설명자료

기상청

배포일시	2018. 1. 24.(수) 14:40 (총 4매)	보도시점	즉 시		
담당부서	지진화산연구과	담 당 자	과 장 이 덕 기 연구관 박 순 천	전화번호	02-2181-0060 02-2181-0062

23일, 일본 쿠사츠시라네화산과 필리핀 마욘화산 분화

- 화산재에 의한 우리나라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-

□ 어제(23일) 일본 혼슈에 위치한 쿠사츠시라네화산의 주봉인 모토시라네산이 분화하였음

○ 분화 후, 총 382회의 화산성 지진이 관측(23일 16시 현재)되었으며,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

○ 쿠사츠시라네화산은 수증기 폭발 위주의 소규모 분화를 반복하고 있으며, 현재는 화산경계레벨 3[1]으로 화산 접근이 금지되고 있음

– 쿠사츠시라네화산은 1932년 화산폭발지수(VEI: Volcanic Explosivity Index) 3의 분화로 9명의 사상자를 냈으며, 1971년과 1976년에는 화산가스로 인해 각각 6명과 3명이 사망한 바 있음

□ 필리핀 마욘화산은 이달 13일부터 분화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활동이 이어지고 있으며, 화산재가 높이 5km 이상 분출하고 있음

○ 오늘(24일) 7시 25분(한국시각)에도 분연주 높이 약 7.5km의 화산재 분출이 있었음

1) 일본은 화산경계레벨 총 5단계(1~5)로 나눠지며 5단계가 최고 위험 단계임

○ 마욘화산은 작년 10월부터 화산체가 부풀어오르는 현상이 관측되었으며, 현재는 화산경계레벨 4[2]로 화산주변 8km 이내 접근이 금지되고 있음

- 마욘화산은 1600년대 이후 화산폭발지수 3 이상의 분화가 16회 발생하였으며, 1814년 화산폭발지수 4의 분화로 1200명 이상이 사망한 바 있음

□ 일본 쿠사츠시라네화산과 필리핀 마욘화산은, 지진 및 화산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지역에 위치하여 화산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활화산임

□ 일본 쿠사츠시라네화산은 수증기 반응에 의한 분화이고, 필리핀 마욘화산은 마그마 관입에 의한 분화임. 화산 분화를 일으킨 요인은 다를 것으로 판단되며, 일반적으로 마그마 관입에 의해 분화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음

2) 필리핀은 화산경계레벨 총 6단계(0~5)로 나눠지며 5단계가 최고 위험 단계임

첨부 **일본 쿠사츠시라네 및 필리핀 마욘화산 분화 현황**

□ 일본 쿠사츠시라네화산 분화 현황

○ 위치(해발고도) : 36.62N, 138.53E (2165m)

(일본 수도 도쿄에서 북서쪽 약 150km)

○ 최근 분화시각 : 2018년 1월 23일 한국시각 9:59(00:59 UST)

○ 분화 피해 : 1명 사망 및 10여명 부상 (NHK 보도자료)

○ 분화로 인한 화산재 확산 방향 (23~24일)

- 화산재는 대부분 태평양쪽으로 확산되어 국내 유입 가능성 없음

○ 현재 화산 상태 (출처 : 일본기상청)

- 23일 분화 후 소규모 화산성 지진이 관측
- 23일 총 382회의 화산성 지진이 관측되었으나 현재 점차 감소 중
- 현재, 경계레벨 3 유지(화산 접근 금지)

○ 과거분화 이력 및 인명피해 (출처: 일본의 화산 (2016), GVP/Smithsonian Institution)

- 대부분 수증기 폭발이며 소규모 분화를 반복하고 있음
- 18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21회 이상 (화산폭발지수(VEI) 3이상 1회)
- 1897년 (VEI 2) : 부상자 1명
- 1932년 (VEI 3) : 사망자 2명, 부상자 7명
- 1971년 : 사망자 6명(화산가스 중독)
- 1976년 : 사망자 3명(화산가스 중독)

□ 필리핀 마욘화산 분화 현황

○ 위치(해발고도) : 13.26N, 123.69E (2462m)

(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남동쪽 약 320km, 루손(Luzon) 섬)

○ 최근 분화시각 : 2018년 1월 24일 한국시각 7:25(22:25 UST)

○ 최근 분화 분연주 높이 : 약 7.5km

※ 2018년 1월 13일부터 현재까지 활동이 이어지고 있음

○ 현재 화산 활동 상태 (출처: 필리핀 화산지진 연구소)

- '18년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용암기둥이 500m 이상, 화산재는 고도 5km 이상 분출
- '17년 10월부터 화산 주변의 GPS 및 경사계를 이용하여 화산체가 부풀어 오름을 관측하였으며 마그마 관입으로 인한 현상으로 판단 중
- 현재, 경계레벨 4 유지(8km 접근 금지)

○ 과거분화 이력 및 대규모 사망자 수 (출처: GVP / Smithsonian Institution)

- 1616년부터 2018년까지 58회 이상 (화산폭발지수(VEI) 3이상 16회)
- 1814년 (VEI 4) : 1200명 이상
- 1897년 (VEI 4) : 500명 이상
- 1893년 (VEI 2) : 75명 이상